

북스

Books

‘폭로의 제왕’ 어산지의 정체 폭로하다

위키리크스...

다니엘 돔사이트-베르크 지음



줄리언 어산지(왼쪽)와 저자 다니엘 돔사이트-베르크.

(지식갤러리 제공)

30년간 이집트를 통치해온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결국 민주화 시위에 굴복해 관좌에서 물러났다. ‘현대판 파라오’로 불렸던 무바라크 대통령을 권좌에서 몰아낸 ‘숨은 공로자’는 다름 아닌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였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튀니지 정부의 부패상을 담은 미국의 외교전문은 튀니지에서 ‘재스민 혁명’이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열풍’은 이집트로 번져 30년 무바라크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됐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위키리크스는 정부와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를 폭로하며 ‘비밀 없는 세상’을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위키리크스의 실체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다니엘 돔사이트-베르크가 쓴 ‘위키리크스-마침내 드러나는 위험한 진실’은 이처럼 전례 없이 파워풀한 폭로 기관 위키리크스에 대한 궁금증에 답을 제시한다. 저자 다니엘은 초장기 멤버이자 2인자로 활약했지만 어산지와 더불어 지난해 9월 위키리크스를 떠났으며 위키리크스의 경쟁 사이트인 오픈리크스를 열었다.

책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며 위키리크스의 주요 활동과 대형 폭로프로젝트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루고 있다.

베일에만 가려져 있던 어산지의 정체와 ‘최후의 심판’ 파일 등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은 문서들의 실

체를 비롯해 비밀문서의 입수 및 폭로과정, 폭로하는 문서의 선정 및 사실 확인 과정, 제보자의 신분 보장 방법 등 흥미로운 내용들이 실제 있었던 일화와 함께 소개되어 마치 한 편의 첩보영화를 보는 듯하다.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해 사이트 운영방식과 재정 상태, 조직 네트워크 멤버들 간의 소통문화는 물론 위키리크스가 추구하는 기본 원칙과 주요 활동 등 외부에서는 알 수 없었던 내용들도 가득하다.

온갖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문제점과 위키리크스의 나아갈 방향도 제시했다.

저자는 위키리크스는 언론의 자유와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세간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권력에 맞선 투쟁을 하는 사이 아이러니하게도 위키리크스

와 어산지 역시 하나의 권력이 됐다고 말한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하는 내용과 어산지의 말 한마디가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미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보관하던 비밀을 5개의 거대 언론사와 어산지가 보관하고 있다”며 “최근 폭로된 내용들은 위키리크스의 예전 기본 이념과 동떨어져 있다”고 꼬집는다.

그러면서 저자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위키리크스가 폭로하는 내용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위키리크스의 역할에도 관심을 뒤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등 전 세계 18개국에서 동시에 출간됐다.

(지식갤러리·1만3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책



▲사랑을 그리다=예술가들은 자신이 느낀 사랑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의 초상을 그렸다. 페테르 파울 루벤스, 구스타프 클림트, 카미유 클로델, 프리다 칼로, 파블로 피카소 등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들이 그린 ‘사랑’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예술가들은 자신의 연인을 찬미하고 그 감정을 예술로 승화시킴으로써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작품을 감상하는 우리를 감동하게 만든다. <아트북스·1만3800원>



▲명장열전-나라를 구한 사람들=이성무 한국 역사문화연구원장이 우리 역사 속 명장(名將)들의 활약상과 면면을 소개한다. 고대 삼국시대의 영웅 을지문덕부터 근대 광복군 사령관 지청천까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명장 31명을 만날 수 있다. 명장들의 이야기를 통해 열정이 각축하는 21세기의 우리에게 필요한 국제관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군사지도자와 국가지도자는 어떤 인물이어야 하는지 볼 수 있다. <청아출판사·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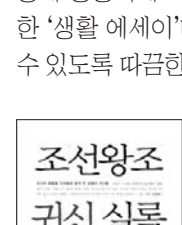
▲웃음의 과학=개그맨이자 언론학 박사인 이운석씨가 다년간의 예능 경험과 과학과 접목시켰다. 인간과 웃음의 관계에 관한 과학적 개론서이자 입문서이다. 진화, 발달, 뇌, 심리, 사회, 건강이라는 6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웃음의 탄생부터 시대에 따라 달라진 웃음의 역할, 웃음이 우리 몸속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이르기까지 웃음의 본질에 대해 탐구했다. <사이언스북스·1만5000원>



▲어느 책독자의 고백=미국에서 신문의 프리랜서, 편집자, 작가 등으로 활동하는 독서에호가 독특한 에세이다. 스스로를 ‘책중독자’라고 밝힌 저자가 책 중독의 다양한 증세와 전설적인 책중독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책중독자인지 알아보는 테스트, 장소의 한계를 극복하고 책 읽는 법, 아내 몰래 사들인 책을 집으로 안전하게 가져가는 법 등도 흥미를 자아낸다. <돌베개·1만4000원>



▲점점 접히는 곳이다=불교와 불자들의 세계를 다룬 산문과 소설들을 주로 써온 작가 정찬주씨가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도 산재한 작은 사찰 40여 곳을 순례하며 느낀 감성을 사진과 글로 엮어 냈다. 뜨는 해를 볼 수 있는 지리산 법계사, 미남 돌부처가 있는 경주 남산 보리사, 역사가 살아 숨쉬는 박물관 같은 가자산 보림사 등을 소개하고 그곳에서 ‘나’라는 교만을 버리는 과정을 그린다. <이랑·1만5000원>



▲조선왕조 귀신 실록=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귀신과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조선왕조의 어두운 역사를 조명한다. 부엉이 소리를 끄떡하게 싫어했던 태종 이방원, 새로운 별궁을 지어 거처를 옮겨다녔던 광해군 등 귀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조선왕조의 숨겨진 역사를 들려준다. <돌베개·1만2000원>

세상 올린 철레 광부 33인

가짜사·구조과정 이야기

전 세계에 뜨거운 감동을 안겨 준 철레 광부 33인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은 ‘The 33-세상을 올린 철레 광부 33인의 위대한 승리’가 출간됐다.

사고 현장에서 지켜본 광부들의 모습과 심경 변화, 가족의 사연, 구조 과정 등을 생생히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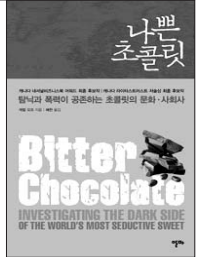
이번 책은 미국의 저널리스트 조나단 프랭클린이 칠레 당국으로부터 ‘구조대’ 신분증을 얻어 구조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보았기에 가능했다. 저자는 광부 33인의 갈등과 반목의 시간, 정부의 언론 통제, 유례없는 구조의 시행착오 등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면의 이야기까지 세세하게 다뤘다.

<월드김영사·1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나쁜 초콜릿...

캐럴 오프 지음



초콜릿은 역사에 등장한 순간부터 지위가 낮거나 가난한 사람들의 고된 노동으로 만들어졌다. 3000여 년 전 올메크족 여인들은 지배자들을 위해 카카오 음료를 바쳤다. 마야인들은 그들을 식민지배한 에스파냐를 위해 카카오를 재배했다. 이제 아프리카 농부들은 거대한 초콜릿 기업에 힘겹게 카카오를 팔고 있다. 그들의 농장에서는 노예와 닮은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카카오를 수확하고 있다. 초콜릿의 역사는 이렇게 수많은 세대의 피와 땀으로 쓰였다. 캐나다 언론인으로, 걸프전과 유고슬라비아 내전 등 분쟁 현장을 누볐으며 다큐멘터리 기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캐럴 오프가 쓴 ‘나쁜 초콜릿-

탐닉과 폭력이 공존하는 초콜릿의 문화·사회사’는 달콤함 속에 감춰져 있는 초콜릿의 ‘쓰디쓴’ 역사와 현실을 파헤쳤다.

저자는 전 세계 카카오 원두의 절반가량을 생산하는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왜 전쟁과 아동 노동착취가 끊이지 않는지, 허시, 마스, 캐드베리 등 거대 초콜릿 업체들은 어떻게 초콜릿 산업을 발전시켰는지, 유기농 초콜릿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등 결코 달콤하지 않은 초콜릿의 역사를 살펴본다.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초콜릿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거대 초콜릿 업체들은 카카오 가격을 낮게 책정해 아프리카 아이들을 중노동에 몰아넣고 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초콜릿 맛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카카오 농장에서 생계를 위해 온종일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저자는 폭로한다. 코트디부아르에

서 관형 초콜릿 한 개 값은 아이 한 명의 사흘치 품삯보다 더 비싸다.

“내가 사는 세상에서 누리는 소소한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힘겹게 일하는 아이들은 정작 그런 즐거움을 전혀 알지 못한다. 카가오를 따는 손과 관형 초콜릿을 짚는 손, 이들 둘 사이의 거리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멀다”고 저자는 고백한다.

프랑스 국왕 루이 15세의 정부로 이름난 공파두르 부인이 당시 최음제로 알려진 카가오를 자신의 성기능 장애 치료제로 사용하다가 초콜릿 중독자가 되었다는 2차 대전 때 미국의 허시 사가 초콜릿이 고열량 식품이란 점을 들어 군부를 설득해 초코바를 전투식량으로 납품해 호황을 맞은 일화 등 초콜릿과 관련한 풍성한 이야기들 담고 있어 흥미를 돋운다. 원제는 ‘Bitter Chocolate’. <알마·2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달콤함’ 속에 감춰진 ‘쓰디쓴’ 역사와 현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SINCE 1982
www.kjhr.com

국제보청기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부모님께 밝고 깨끗한 소리를 들려드리세요!

매장안내 ★ 가까운 매장에 오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본점

대성학원
장동로터리
아시아문화재단
신축부지
● 도형역
2번출구

☎062)227-9940/225-9940

총장점

1도형역
2도형역
3도형역
4가

☎062)227-9970

순천점

순천점
순천점
순천점

☎061)752-9940

목포점

목포점
목포점
목포점

☎061)262-9200